

## 9일 고3·중3부터 '온라인 개학' ... 수능 2주일 연기

초·중·고 순차적으로 원격 수업 ... 유치원 휴업 무기 연장  
수업 차질에 대입 불안감 가중 ... 취약계층 대책 마련해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 당국이 3차례 개학 연기와 수능 2주 연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불어 등교 개학을 연기한 대신 학사 일정을 고려해 4월 내에 초·중·고 학교 급별 온라인 수업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7면>

입시를 준비해야 할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4월 9일에 온라인으로 개학하고, 나머지 학년(초·중·고)은 순차적으로 원격 수업을 시작한다. 초등 4~6년·중등 1~2년·고등 1~2년 학생들은 4월 16일에 나머지 초등 1~3년을 4월 20일에 순차적으로 개학(원격 수업)한다.

유엔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7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교육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감염 통제 가능성, 학교 개학 준비도,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과 등교 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해 학교를 온라인으로 개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학년별로 개학 후 이틀 간의 원격수업 적응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에 학생들은 수업 콘텐츠와 원격수업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힌다. 출결·평가 방법을 안내하는 원격수업 오리엔테이션과 온라인 개학식도 진행한다.

유치원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감염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등원 개학

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온라인 개학에 따라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도 전반적으로 순연된다.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8월31일에서 9월16일로 16일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당초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연기한다. 수시와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도 순연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인 만큼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사들조차도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아무런 예방연습 없이 맞게 됐다"며 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 차질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앞선 세 차례 개학 연기로 이미 한 달 가까이 '수업 공백'이 생겨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은 추가 개학 연기와 이후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이 대입 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당장 5월 중간고사와 7월 기말고사도 순연될 상황이고, 보통 4주 정도인 여름방학도 2주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짧아진 학사일정으로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가중되고, 대입 준비 기간 부족에 따라 수시 학생부 마감도 검토·수정할 시간이 모자라게 돼 대입 수시 모집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한 입시전문가는 이번 온라인



그래도, 봄꽃은 핀다.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31일. 코로나19 여파로 탐방객이 뜰 광주 서구 운천호수공원 일대에 벚꽃이 만개해 있다. 광주 서구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지난날 28일부터 오는 5일까지 공원 내 산책로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개학과 관련 "고3 학생들은 재수하는 학생들에 비해 불리할 수 있다"며 "이미 학습 결손이 6주 이상 발생했지만 수능은 겨우 2주 연기돼 물리적으로 수능 준비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개학 후에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며 "대학 개강이 미뤄지고 수능이 연기돼 반수생까지 증가할 경우 고3에겐 새로운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시·전남도, 자체 생계지원금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과 별도 지급

오늘부터 지원 신청 접수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과 별도로 자체 생계지원금을 예정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3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31일 시청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23일 발표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책을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운데 중복 수혜자를 제외한 26만여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한다. 자체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도 예정대로 4월 1일부터 받는다. 광주시는 다만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정부 80%, 자치단체 20% 부담)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겠

다고 결정함에 따라 추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소득 하위 70%를 중위 소득 150% 이하로 단산 선정하면 광주에서는 50만 8000 가구가 해당해 660억원 안팎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이 시장은 "지자체와 정부 간에,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건이 변할 수 있지만 광주는 정부안이 발표되면 가급적 그대로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에서 기존 생활지원을 받는 가구를 제외한 32만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원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남 4·광주 2명 ... 확진자 하루 최다 발생

6명 중 5명이 영국에서 입국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여수·순천·무안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4명이 한꺼번에 발생했다. 해외 입국자 3명(외국인 1명)과 서울만민교회 확진자 접촉자로 전남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다. 광주에서도 이날 유럽발 확진자가 2명이나 발생했다.

<관련기사 2면>

지난 3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10번째 환자는 영국에서 지난 29일 입국한 순천 거주 40대 남성이다. 4개월 간의 런던 파견 근무를 마친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인천공항 해외입국자 전용 KTX를 타고 순천에 도착,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이후 순천시 자체 격리시설에 머물다 30일 밤 10시경 양성 판정을 받고 순천의료원에 옮겨졌다. 함께 귀국한 아내와 딸은 처가가 있는 광주의 임시시설에 격리 중이었으며, 전남도는 10번째 확진자 발생 사실을 광주시에 통보했다. 이 중 아내

(43)도 이날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

전남 11번째 환자는 무안군 거주 90대 여성이다. 서울만민교회 확진자의 접촉자로, 서울에 사는 아들이 본가에 다녀가면 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11번째 환자와 함께 살거나 왕래가 있는 아들 3명, 요양보호사 등 접촉자 18명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 다만 접촉자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순회 방문하며 노인·장애인 등을 돌보는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은 추가 감염자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12번째 환자는 영국에서 지난 30일 귀국, 여수 집으로 내려온 20대 여성이다. 인천공항에서 이모부 자가용을 이용해 여수에 도착,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귀가했다. 검사 결과, 이날 새벽 양성 판정이 내려져 순천의료원에 격리됐다. 13번째 환자는 12번째 확진자의 지인으로 스페인 국적의 20대 남성으로, 순천의료원에 격리, 치료 중이다.

광주에서도 이날 2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으로 늘었다. 광주 21번째 확진자는 전남 10번째 확진자의 아내(43)로, 지난 29일 오후 영국에서

남편, 딸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광주 22번째 확진자는 서구에 거주하는 20대 여성(20)이며, 지난 29일 오전 영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모두 유럽발 입국자 대응 지침에 따라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KTX를 이용해 광주중성역에 도착한 뒤 소방학교생활관에 시설격리됐다.

정부는 1일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방침을 정하고, 격리지침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한다.

지난 3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9786명으로 집계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지 완도!



2021완도국제  
**해조류박람회**  
Wando International Seaweeds Exhibition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 여는 희망의 미래

**2021. 4. 23. ~ 5. 16. (24일간)**

완도해변공원 일원



